

-더니

~더니 — 과거에 본 것과 그 후의 변화·결과

예전에 직접 본 일을 말하고, 이어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. 주어는 다른 사람이며, 자기 자신의 행동에는 형태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: -았/었더니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·형용사	-더니	춡다 → 춡더니
ㄹ 어간은 ㄹ 유 지	-더니	만들다 → 만들더니
대조	전과 지금	아까는 춡더니 지금은 따듯해 요
결과	관찰한 원인	열심히 하더니 합격했어요
주어	다른 사람	제가 공부하더니 틀림
자기 자신의 행동	-았/었더니	제가 갔더니

■ 언제 쓰나요

-더니는 모든 어간에 붙습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그대로 남으며, 기본 용법에서는 앞에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

-더라고요와 마찬가지로 더는 직접 보았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주어는 보통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물입니다.

같은 형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대조: 그 뒤로 상황이 바뀐 경우입니다 — 아까는 춡더니 지금은 따듯하네요. 결과: 본 것이 뒤의 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—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에 합격했어요.

결과의 의미에서는 ‘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’는 느낌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본 것을 생각하면 그 결과가 이해된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아까는 춡더니 지금은 따듯하네요.
- 2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에 합격했어요.
- 3 그 가게가 잘되더니 지점을 냈어요.
- 4 아이가 계속 울더니 잠이 들었어요.
- 5 친구가 매일 요리를 만들더니 실력이 늘었어요.
- 6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맑네요.

■ 비교

-았/었더니

주어에 따라 어느 쪽을 쓸지 정해집니다. -더니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보고 전하는 것이고, -았/었더니 는 내가 한 일과 그 결과 알게 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.

동생이 공부하더니 합격했어요. (동생을 지켜봄) / 제가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. (내가 가서 알게 됨)

-지만

대조의 의미에서 -지만은 단순한 반대를 나타내고, -더니는 앞의 상태를 직접 보았으며 그 변화가 놀랍다는 느낌을 더합니다.

아까는 추웠지만 지금은 따듯해요. (단순 대조) / 아까는 춡더니 지금은 따듯하네요. (변화를 알아챈)

-더라고요

같은 더가 들어 있습니다. 둘 다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 하므로,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는 둘 다 자연스럽게 않습니다.

춡더라고요. (추웠음을 경험함) / 춡더니 따듯해졌어요. (춡다가 따듯해짐)

■ 주의

- ✗ 제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합격했어요.
- 제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합격했어요.
- 더니는 다른 사람에게서 본 것을 전합니다. 자기 자신의 행동에는 -았/었더니를 쓰세요.
- ✗ 친구가 요리를 만들더니 실력이 늘었어요.
- 친구가 요리를 만들더니 실력이 늘었어요.
- 더니는 어간에 그대로 붙으며, ㄹ이 탈락하는 -는과 달리 ㄹ이 남습니다.
- ✗ 뉴스에서 봤는데 그 가게가 잘되더니 지점을 냈대요.
- 그 가게가 잘된다더니 지점을 냈대요.
- 더니는 직접 보았다는 뜻입니다. 들은 이야기라면 간접 인용 형태를 바탕으로 만드세요.